

**Asia and Pacific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Fou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및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와 공동연구진행 논의**

2019. 02.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sia and Pacific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Fou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및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와 공동연구진행 논의**

I 출장 개요

- 출 장 자 : 국제협력센터 승재현 팀장
- 출 장 지 : 태국 방콕
- 출장기간 : 2019. 01. 21(월) ~ 2019. 01. 25(금)(3박5일)

II 출장 일정

월 일	출발지	도착지	주요 일정(별첨 자료 3. 참고)	
01.21(월)	인천 17:20 (KE651)	방콕	방콕 도착(21:30)	
01.22.(화)			Asia and Pacific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Fou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9a.m ~12p.m	Item 1. Opening of the Meeting Item 2. Election of officers Item 3. Adoption of the agenda and other organizational matters Item 4. Main theme of the Fourteenth Congress: “Advancing crime prevention, crimin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
			2p.m ~ 5p.m	Item 5. Substantive items on the agenda and the topics of the workshops of the Fourteenth Congress

01.23.(수)		방콕	Asia and Pacific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Fou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9a.m ~ 17p.m	Item 5. Substantive items on the agenda and the topics of the workshops of the Fourteenth Congress (continued)
01.24.(목)		방콕	Asia and Pacific Reg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Fou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9a.m ~ 17p.m	Item6. Recommendations for the Fourteenth Congress Item7. Adoption of the report on the Meeting Closure of the Meeting
01.24.(목)	방콕 23:15 (KE658)	01.25(금)	06:40서울 도착	

III

회의 내용

- 제1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아태 지역회의
- 2019년 1월 22~24일 태국 방콕

○ 개요

-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는 범죄방지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총회의 역할, 기능, 회기, 기간을 규정한 결의 56/119호에서 당해 총회를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라 명명하고 총회 회기 전 지역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 2006년 8월 15~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의 교훈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서는 총회 준비과정에 지역적

관심사항과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당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회의가 총회 준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화 및 점진적으로 증진되는 범죄의 초국가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지역마다 상이한 관심 및 우려사항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지역적 관심사항이 총회의 여러 주제 고려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E/CN.15/2007/6, para.23).

- 유엔 총회는 결의 72/192호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1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지역회의 개최를 구성할 것과 저개발국 국가들이 과거 관행을 참조하거나 여러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회의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같은 결의에서 총회는 관련 유엔 프로그램, 유엔 산하 전문기구, 정부간 및 비정부기구 그리고 그 외 전문기구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협의를 통해 제14차 총회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위와 동일한 결의에서 유엔 총회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회원기관(the institutes of th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와 협력하여 제14차 총회를 위한 지역회의에 관한 토의 가이드(Discussion guide)를 적시에 작성하고 회원국의 적극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하였다.
-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는 제27차 연례회의에서 토의 가이드 초안을 검토하였다. 유엔 총회는 결의 73/184호에서 토의 가이드 초안의 작성에 감사를 표하고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2019년 내 빠른 시일에 회원국 및 위원회가 제공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토의 가이드 작성을 완료할 것을 결의하였다.
- 유엔 총회는 결의 72/192호에서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제

14차 총회 준비를 실시할 것과 가능할 시 회원국 정부 내 준비위원회를 개설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 총회는 또한 전술한 결의 및 결의 73/184 호에서 지역회의 참가로 하여금 의제 안전과 워크숍 주제를 검토하고 제14차 총회에서 숙고할 권고안 및 결론(recommendation & conclusion)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행동 중심의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회의 참여 및 구성

A. 일시 및 장소

제14차 총회 준비를 위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회의는 2019년 1월 22 일에서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B. 참여

- 다음의 유엔 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회원국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여하였다: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프랑스, 인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공화국, 라오스, 몰디브 공화국,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대한민국(정부대표단에 송재현 박사포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터키, 미국, 바투아투 공화국, 베트남.
- 다음의 국가에서 참관인(observer)을 파견하였다: 레바논,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 다음의 유엔 체제 기관이 참여하였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 다음의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회원기관(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이 참여하였다: ISPAC, TIJ, UNAFEI, KIC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 중인 다음의 비정부기구가 참여하였다:

일본변호사협회.

C. 개회

- 2019년 1월 22일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회의 서기(Secretary)의 주재 하 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 UNODC 대표단의 발언 내용

UNODC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실시한 발언에서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가 형사사법의 도전과제 및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 및 정책을 종합하고 평가하며 범죄 관련 국제 기준과 규범의 정기적인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14차 총회가 개최될 일본 교토는 50년 전 지역회의를 수반한 제4차 총회가 개최된 장소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제4차 총회 이후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는 의제 및 워크숍 주제 검토와 지역적 관점의 행동 중심의 권고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금번 지역회의가 2020년 합의될 교토 선언(Kyoto Declaration)의 초석이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UNODC 대표단은 또한 태국 정부가 제11차 총회 주최 이후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UNODC 대표단은 또한 UNODC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UNODC 대표단은 이어 제13차 총회에서는 법치와 지속가능발전 간의 상호 발전적인 관련성이 논의되었고 이에 기반을 둔 정치적 합의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16에 반영되었다고 언급하며 2030 의제가 채택된 이후 시점에 개최될 제14차 총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이고 운영 가능한 권고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였다.

- 태국 부총리는 발언 내용

제14차 총회 준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다양한 법적 체제 및 행정 문화를 지닌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전체가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에 지역적 관점 제공을 통하여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총리는 또한 다양한 요소가 역내 범죄와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 조직범죄, 부패와 환경 범죄 등 도전과제의 구조와 수준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은 여러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이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총리는 이러한 범죄 및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서는 사법공조 및 새로운 도구(tool)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부총리는 또한 역내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제14차 총회는 범죄방지, 형사사법, 지속가능발전 간의 연계성을 큰 주제로 법치가 2030 의제 달성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부총리는 또한 아태 지역회의가 첫 번째 개최되는 지역회의인만큼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국 대표단은 추후 실시될 교도 선언의 협상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D. 의장단 구성

2019년 1월 22일 개최된 제1회의에서 아태 지역회의는 투표없이 다음의 의장단을 추대하였다

- 의장: Wisit Wisitsora-At (태국)
- 부의장: Kieran Butler (호주)
- 보고관: Jawad Ali (파키스탄)

E. 의제 채택 및 회의 구성

아태 지역회의는 제1회의에서 다음의 예비의제 (A/CONF.234/RPM.1/L.1)을 채택하였다

1. 개회

2. 의장단 구성
3. 의제 채택 및 회의 구성
4. 제14차 총회 본회의 대주제: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범죄방지, 형사사법, 그리고 법치의 증진(Advancing crime prevention, crimin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
5. 본회의 세부주제 및 제14차 총회 워크숍 주제
 - (a)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범죄방지 전략 (의제 3) 그리고 증거 기반의 범죄방지: 통계, 지표,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평가 방안
 - (b) 형사사법체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안과 재범 감소 방안: 위험 요소 식별 및 해결 방안 마련
 - (c) 회원국의 사법 접근 증대, 효과적이고 책무성있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법기관 마련,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법치 문화 발전 등 사회, 경제, 기타 관련 방안의 고려를 통한 법치 증진
 - (d) 모든 형태의 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 (a) 모든 형태의 테러 (b) 새롭게 부상하는 신종형태의 범죄(의제 6) (c) 범죄 추세, 최근 경향, 그리고 범죄 수행 및 방지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역할 등 새로운 범죄 해결 방안

F. 회의 진행

Wisit Wisitsora-At (태국) 의장이 제1회의 및 제3~6회의를 주재하였고 Kieran Butler (호주) 부의장이 제2회의를 주재하였다.

G. 기타 사항

- 제14차 총회 주최국인 일본 정부 대표단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당해 총회 및 청소년 포럼(the Youth Forum)의 구성과 준비에 대하

여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대표단은 1970년 실시된 제4차 총회에서 실시된 숙고사항과 처음으로 결정된 정치적 합의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ISPAC 참관인은 제14차 총회 회기 간 실시될 부대행사 및 회의와 관련된 준비사항을 보고하였다.

- 개발 의제를 접목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의 개념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상호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범죄방지 분야의 실무자들은 오래 전부터 여러 분야를 연계하는 다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SDG가 이에 대한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 또한 형사사법 분야에서 실무자들은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실무에 제약을 받지만 이와 동시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재량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이 지속발전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며 다자적 접근이 이러한 기여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 보고서 채택 및 폐회

1. 2019년 1월 24일, 아태 지역회의는 제6회의에서 최종보고서 (A/CONF.234/RPM.1/L.2, A/CONF.234/RPM.1/Add.1, A/CONF.234/RPM.1/L.2/Add.2)를 심의하고 채택하였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WORKSHOP 4 관련 당사국 토의 내용 결과 정리

모든 형태의 범죄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및 기술지원: (a) 모든 형태의 테러 (b) 새롭게 부상하는 신종형태의 범죄(의제6) (c) 범죄 추세, 최근 범죄 경향, 새로운 해결방안, 특히 범죄수행 및 방지 수단으로서의 새로운 기술(워크숍 4)



○ 주요 논의사항

1. 아테 지역회의에서는 모든 형태의 테러로 인한 위협과 도전과제가 언급되었다. 대테러 활동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위해서 개별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 및 국제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금융 수사를 통한 테러자금조달 대응도 강조되었다. 범죄 및 테러 조직의 적발 및 와해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조되었다. 디지털 환경 하 범죄수행에 있어서 범죄자 간 암호화된 의사소통(encrypted communications)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관심과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2. 분쟁 장기화에 있어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테러단체의 역할이 언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들 단체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과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3. 반부패 및 부패 근절 문화 증진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4. 회의에서는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이 새롭게 부상하는 신종 범죄의 위협을 식별하였는 바, 이러한 사항이 제14차 총회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진화하는 범죄에 발맞추어 국제협력과 기술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5. 회의에서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약 프레임워크의 법적 구성(legal architecture)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6.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관련 의정서, 부패방지 협약, 테러방지에 관한 여러 국제협약과 의정서가 범죄인 인도조약과 상호사법공조, 범죄수익 환수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7. 전술한 국제협약을 법적 토대로 한 범죄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관련 의정서 및 반부패 협약의 이행 검토 매커니즘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범죄를 국제적 수준에서 방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에 기반하여 상호공

조 및 공동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8. 또한 양자 협력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 주권 존중에 입각한 양자협정의 체결을 통한 국제협력 증대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차원의 협력과 협력 증진 기제가 언급되었다. 특히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사범공조협약이 역내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9. 형사사범공조 증진과 관련하여 카드 대금 지불 사기 부문에 있어서 Europol과 ASEANPOL의 협력이 모범사례로 언급되었으며, 이러한 협력 기제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 등에도 확대 및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외에도 UNODC, INTERPOL과 해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국경통제 및 이를 통한 여러 초국가적 조직 범죄 단체의 범죄 적발 등이 모범사례로 언급되었다. 회의는 국제협력의 실질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특히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에 방점을 두었다.
10. 사이버범죄 분야와 관련해서는 범죄 목적의 디지털 환경 악용이 언급되었는 바, 이러한 사례로 다크웹을 통한 마약 불법 거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악용을 통한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 신원 도용 범죄, 자금세탁 목적의 온라인 도박과 암호화폐 악용 등이 언급되었다.
11. 또한 회의에서는 마약 불법거래 조직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는 범죄도구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례로 인터넷 및 다크웹과 국제우편체계, 암호화폐 등을 활용한 범집행 회피가 언급되었다.
12. 몇몇 대표단은 사이버범죄 및 문화재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일부 대표단은 기존의 국제협약을 활용할 필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13. 회의 참가자들은 살바도르 선언(Salvador Declaration) 42항에 의거하여 설립된포괄적 사이버범죄 연구를 위한 정부 전문가 회의

(Open-ended 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to conduct a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의 업무에 감사를 표하고, 해당 전문가 회의가 합의된 업무계획을 지속 수행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4. 회의 참가자들은 또한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의 지속 활용을 위한 개별 회원국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별 회원국 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가 전문지식 및 기술역량을 증진하고 복잡한 범죄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UNODC와 관련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노력의 분산과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 회의 결과

- (a)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관련 의정서, 부패방지 협약, 테러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 의정서의 이행과 이를 통한 자산몰수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강화. 협약 미가입 회원국의 가입 및 비준 촉구
- (b) 유엔 협약과 기타 국제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국내법 검토 및 강화. 사법공조요청의 처리에 있어서 이중위험금지(double criminality) 등 국제협약조항의 포괄적인 해석 허용
- (c) 국제협력 담당 사법 및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정보교환 및 훈련기회 확대를 위한 매커니즘 마련
- (d) 양자 간의 사법공조요청 처리 및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운영과 회원국의 요청 시 사법공조 요청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지원
- (e) 역내 및 지역 간 법집행 및 사법공조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창설 및 기능 강화 지원
- (f) 새롭게 부상하는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검찰 및 수사기관 내 특별 수사부서 신설

- (g) 공공인식제고, 반부패협약 검토 및 강화, 의회 감시 역할 수행, 청렴성 및 책무성 문화 증진 등 부패 방지 및 근절에 있어서의 의회 역할 강화 및 국내 수준의 법치 강화 및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 (h) Eurojust 등 기타 지역의 현존하는 실무사례에 기반하여 사법공조 처리를 위한 중앙집권적인 기구 창설 검토
- (i) 개별 회원국의 UNODC가 개발한 도구 등 가용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국제협력요청 수행 역량 강화
- (j) 개별회원국 소속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고도화, 지능적 범죄 대처를 위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방안 모색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 발표 내용 요지 정리

-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의 출현, 특히 사이버 관련 범죄 증가로 인한 새로운 수사기법 개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이를 위해 한국은 ① 검찰 등 형사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범죄의 최신 동향 및 각종 수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고, ②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효과적이고 신속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형사절차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③ 각 부처 및 민간 영역이 긴밀히 협력할 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으로 구축한 협조 체계를 이용하여 해외 범죄수익환수, 범죄인인도 등 우수한 성과들을 거양하였음
- 현재 불법 마약 범죄에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으며 다크웹 사용, 암호화페 사용 등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당사자국의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법공조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국제협력센터 팀장의 2020년 유엔 제14차 워크숍 4 구성안 발표



1. 개 요

- 결의 46/152호에 의거, '55년부터 매5년 개최되는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United Nations congresse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는 회원국·정부간기구·비정부기구·전문가 간 관련 연구와 법제 그리고 정책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국제 정책기조를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함.
- 2020년 4월 일본에서 개최될 제14차 총회는 유엔의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채택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형사 사법 분야 SDG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

2. 일 정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20~27일 / 일본 교토
- 대주제 :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성취를 위한
범죄예방·형사사법 정의 및 법치주의 촉진 방안

3. PNI Workshop 개요

-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는 결의 72/192호를 의결, 제14차 총회의
대주제와 워크숍 주제를 결정하였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18개 PNI 기관과 협력하여 워크숍을 주관하며, PNI는 지역회의에 참
석하여 지역적 관점과 정책 수요를 파악할 것을 요청하였음.
- 본원은 4개 워크숍 중 하나인 「Workshop 4. Current crime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solutions, in particular new
technologies as means for and tools against crime」 (현 범죄 추세와
최근 경향 그리고 특히 범죄 악용과 예방 수단으로서의 새로운 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범죄대응 방안) 구성과 개최를 주관함.

4. Workshop 4 구성(안)

- 본원은 UNODC와 공동으로 작성한 워크숍 토의 가이드(Discussion
Guide)에서 6개의 세부주제를 선정하였는 바, 2개를 한쌍으로 하는 총
3개 세션을 하루 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임.
- 각 세션은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총 4명의 발표자로 구성하며, 이들 중 1
명을 기조연설자로 섭외할 예정임.
- 본원은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와 공동으로 당해 워크숍을 주관할 계
획으로 세션1은 본원이, 세션 2는 NIJ가, 세션3은 각 1개 주제씩 담당
하여 발표자 섭외와 세부 구성을 진행할 예정임.

일자	세션 구성
첫째날 (전일)	세션1. 범죄악용 수단으로서의 기술 (KIC)
	① 암호화폐 ② 다크웹에서의 화기 밀거래
	세션2. 범죄악용 및 예방 수단으로서의 기술 (NIJ)
	③ 상대적 저위험 마약시장 형성을 위한 기술의 역할 ④ 불법이주에 있어서의 기술의 역할
둘째날 (반일)	세션3. 범죄악용 및 예방 수단으로서의 기술 (KIC · NIJ)
	⑤ 인신매매에 있어서의 기술의 역할 ⑥ 아동학대/착취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효과

정산서

1. 호텔비

총회 준비회의 지정 호텔 : VIE 호텔(3박 5일)(다급 130불)

16,350.00THB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이 지불 할 것임(현재의 환율 1140원이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희망함)

2. 회의비

일시 : 2019년 1월 22일

장소 :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면담자 : Julien Garsany, 양건수 UNODC 파견 검사, 이승현 검사, 심인식

UNODC 기획 조정관, 승재현 팀장

회의 내용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UNODC 공동관심사 논의

- 형사사법제도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범죄피해자 관련 논의

- 인신매매 범죄 대응에 있어 피해자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 모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범죄자들의 개별적 수요와 개인적 위험 요소(예컨대 개인사, 정신상태, 가족 환경, 보호자 유무 등)를 감안한 범죄자 교화 및 사회 적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사람이 중심이 되고 젠더에 기반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각종 UN 기준(예컨대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reatment of Prisoners,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 등)의 최소 기준 충족

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수형자 관련 논의

- 수형자에 대한 직업 교육, 학업 기회 제공, 종교 프로그램 운영 등 재범방지를 위한 성공 사례를 공유해야 함
- 수형자가 지역사회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교정시설 내외 프로그램에 대해 통계와 지표를 통한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재범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민간 영역,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교정기관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법치주의 고취를 통한 정부의 다차원적 접근

-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범죄 방지 전략 마련을 위해 교육, 사회, 형사사법기관, 법 집행 기관 등 여러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범죄 예방 노력
- 아동들에게 특화된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들의 형사사법 절차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형사사법기관들의 능력을 신장시켜 법치주의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도록 해야 함
- 형사사법시스템 및 관련 기관들이 정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의무사항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종합적인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의를 위한 정책을 마련·실행하고,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선입견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법률조력을 제공해야 함